



김제시자원봉사센터, 김제자원봉사대학 졸업식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윤권)는 25일 고용복지공동 교육관에서 2024 김제자원봉사대학 평가회 및 졸업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진행된 평가회에서는 각 조별로 발굴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간단히 발표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졸업식은 개회 및 김윤권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강사 소감 발표, △졸업생 대표 소감 발표, △졸업식 폐회 및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2024 김제자원봉사대학의 33명의 졸업생들은 지난 2월 29 일 입학식 및 첫 강의를 시작으로 두 달간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로서 거듭나기 위해 '지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발견', '사회문제 이해와 발굴', '지원봉사 활동기획' 등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김윤권 이사장은 "전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졸업생분들의 활동이 지역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보건소, 구조·응급처치 교육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24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 중 사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급성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기아드라인 △심정지 대처법 △마네강과 교육용 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다.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3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을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로 양성한바 있으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관할 보건지소·진료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방과후아카데미 심폐소생술 교육

남원소방서는 지난 24일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중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 이론과 사례영상을 통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교육용 마네킹을 이용해 △심정지 환자 반응 확인 △119신고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의 올바른 사용법 등 병행해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은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정확하게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심정지 발생 후 4~5분이 경과하면 뇌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

사회경제 혁신 분야 우수상… 부안형 ESG+N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 혁신 증진 기여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제6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경제 혁신 증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권익현 군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부안형 ESG+N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폐쇄적이던 행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와 협업했으며 생활인구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경제 혁신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탄소중립, 지방 소멸 등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안군은 ESG에 거버넌스의 가치를 접목해 기업(Enterprise)·소셜벤처(Social venture)·공공기관(Government)·비정부기구(NGO)가 함께 협력하는 부안만의 ESG+N 민관협력 체계 구축 사례를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행복한 공동체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부안형 ESG 행정 실현을 추진하며 군정 운영 전반에 ESG 행정을 도입해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 ESG 행정 주요 사업은 줄포만 바다단풍 블루카본 군락지 조성, 비건식품 개발, Bee 호텔 도시양봉장 조성, 자립준비청년 부안에서 홀로서기, ISO 부페방지경영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줄포만 바다단풍 블루카본 군락지 조성 및 비건식품 개발사업은 포스코이엔씨, 쿠디보션푸드, 해양경찰청, 월드비전과 함께 줄포만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고 염생식물을 활용한 식물성 대체육을 개발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군은 지난 2월 '월드한 포부만두'라는 이름의 비건식품 시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2월 '환경을 (E) 이해하고 사회와 (S) 상생하는 (G) 지속 가능한 부안'을 비전으로 생활인구 연 5000명 확보, 일자리 500개 창출, 협력기관 50개 유치를 목표로 하는 부안형 ESG+N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행정과 민간이 주체적으로 거버넌스적 협력을 한다면 부안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경찰서, 3대 비위 근절 위한 산상간담회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25일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을 조직내 주요 3대 비위로 인식하고 무주경찰서 청렴선도 그룹을 중심으로 덕유산 산상간담회를 통한 전직원 비위근절에 방적 적극 동참을 독려했다.

이날, 남기재 무주서장은 의무위반 중 상당수는 동료로서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 방관 하여서는 안되며 전직원이 공동체로서 관심을 기울여 의무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원팀 플레이를 강조했다.

한편, 무주경찰서에서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소통공감의 날로 지정, 운영하면서 청렴선도그룹을 중심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로 전환하면서 소통을 통한 조직내 갈등, 불만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각종 비위근절예방에 노력했다. 그간 무주경찰서 반비니플 청렴선도그룹은 'NO 음주운전, NO 성비위, NO 갑질' 슬로건으로 주기적으로 각 부서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무위반에 항거 활동을 전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경찰서, 성비위 예방교육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는 25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본서 및 지구대 전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비위 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젠더문화연구원 원장 양동숙을 강사로 초빙하여 잘못된 편견·차별·蔑과 행동·점검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비위에 대한 전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동료 간 즐거운 직장 분위기와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규운 서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임실경찰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깨끗하고 청렴한 경찰상 정립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고수파크골프장 편의시설 개관식 가져



고수파크골프협회 및 고창군이 지난 24일 고수파크골프장 내에 건립한 편의시설 개관식을 가졌다. 이 자리는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고창군 의원, 파크골프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고수파크골프장은 고수면 상평리 349-4번지 일원에 위치, 1만4000㎡에 9홀규모의 소규모 파크골프장으로 고수파크골프회원 및 인근 회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고창군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휴게시설 및 화장실 약50㎡를 건립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파크골프장 개장시기에 맞추어 편의시설을 준공, 파크골프회원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군은 파크골프동호인 및 주민들을 위해 공유면 선동리 일원에 18홀의 파크골프장을 올해 준공할 예정이며, 이후 고창읍 월안리 및 아산면 운곡습지, 향후 북부권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

무주소방서는 지난 23일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 안전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단체인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무주반디유치원생 23명 및 교사 5명을 대상으로 119청소년단 선서식과 단원 모자 증정 및 소화기 사용법 등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단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대식은 미친 무주반디유치원 한국119청소년단은 앞으로 각종 소방 행사로 통한 홍보 강화와 소방안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활동에 임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신풍동 복지기동대, 실내 안전바 설치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최임관)가 지난 24일 저소득층 6가구에 실내 안전바 설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동불편 또는 장애로 인해 집안에서 낙상하고 위험이 있지만 안전바를 설치할 여유가 없는 가구를 선정해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